

양촌선생(陽村先生) “주역천견록(周易淺見錄)”

▣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태(泰)䷊와 비(否)䷋

구이(九二)[상전(象傳)] ‘거친 것을 포용하여 행위가 중도에 맞는 것’ 은덕이 빛나고 크기 때문이다[‘包荒得尚于中行’，以光大也].

구이가 거친 것을 포용한다는 것을 포함한 네 가지 덕을 가지고 중도를 실천하는 의리에 합당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강한 양으로 중에 자리하면서 광명하고 크게 드러난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 양은 크고 광명한 것이다[‘정전’에서는 “거친 것을 포용함으로써 광대한 덕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타당치 않은 듯하다.

비(否)는 사람이 아니니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否之匪人，不利君子貞。大往小來).

‘본의’는 “‘지비인(之匪人)’ 세 글자는 연문(衍文)인 듯하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태(泰)괘에서는 주로 음양이 소장(消長)하는 이치를 말했으므로 폐사의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를 곧바로 양이 성장하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비(否)는 음이 상대적지려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 않으므로 사람일에 나아가 ‘막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경계하여 말했다. ‘비지(否之)’라는 것은 사람 스스로가 막는 것을 의미한다. 막으면 사람의 도리가 없게 되므로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

천도(天道)의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오는 때이므로 사람일[人事]을 먼저 말하고 나서 천도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천도의 경우에는 음(陰)이 장성하더라도 정(貞)을 거쳐 다시 원(元)이 되는 과정일 뿐, 만물을 낳는 마음은 쉬지 않으므로 ‘비인(匪人)’이라 하여도 사람과 만물을 낳고 낳는 도가 없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람일이 아니게 된 이유는 사람일을 잘못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만일 ‘지(之)’자를 제거하여 ‘비비인(否匪人)’이라고 하거나 세 글자를 모두 제거하여 ‘비불리군자정(否不利君子貞)’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만물을 낳는 이치가

없게 되니 아마도 이와 같이 말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는 바로 천도가 이미 바른 때라도 군자의 바름이 이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다만 사람이 막기 때문에 이롭지 않은 것이다.

‘본의’는 “‘단전’에서 ‘지비인’의 의미를 특별히 풀이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위와 아래가 사귀지 않아 천하에 나라가 없다’고 한 것이 아마도 ‘지비인’을 해석한 것인 듯하다. 천하 방국의 도가 여찌 없었던 적이있는가? 사람이 스스로 막고 위아래가 사귀지 않으므로 그 도가 사라졌을 뿐이다.

태 단전(象傳)에 “안은 군세고 밝은 순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군자의 덕을 말한다. 비(否) [단전]에 “안은 부드럽고 밝은 군세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소인의 실정(實情)을 말한다. ‘내유외강(內柔外剛)’이 바로 “‘논어’에서 “얼굴 색은 엄하나 마음속은 유약하다”는 것이다.

동인(同人)䷌

「단전(象傳)」, 문체나고 밝고, 씩씩하며 중정(中正)으로 응하니 군자의 정도이다. 오직 군자라야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文明以健，中正而應，君子正也。唯君子能通天下志].

「정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군자는 이치에 밝으므로 천하의 뜻에 통할 수 있다. 성인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 마음 같이 보는 것은 이치에 통했기 때문이다. 문명하면 이치를 밝힐 수 있으므로 대동(大同)의 의미를 밝힐 수 있다. 강건하면 극기할 수 있으므로 대동의 도리를 다할 수 있다.” 주지는 “이 살이 매우 좋다”고 평가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정자의 설은 지와 행을 겸해서 말한 것이다. 이른바 ‘통하다’는 것은 스스로 알고 통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뜻을 통달시키도록 한다는 것이다.

들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면 형통하다[同人于野，亨].

이는 괘를 전체적으로 말한다. 광대하여 사사로이 하는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

에 대동의 도가 먼 곳까지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상구(上九) 교(郊)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니 후회가 없다[同人于郊，无悔]

이는 하나의 효로써 말한다. 외롭게 함께 하는 이가 없는 자이니 처음에 교제를 잘하지 않으면 끝에는 반드시 후회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효는 동인(同人)의 끝에 있고 아래로 함께 할 응(應)이 없으니 황량하고 먼 땅에 있으면서 끝내 함께 할 이가 없는 상(象)이다. 따라서 망명되어 교제하여 스스로 실수하는 후회는 없더라도 함께 하고자 하는 뜻은 아직 이를 수 없다.

대유(大有)䷍

「단전(象傳)」대유(大有)는 유(柔)가 높은 자리를 얻고 크게 중하며 아래 위가 응하므로 대유라고 한다[大有柔得尊位，大中而上應之，日大矣]

‘본의’는 “‘유(柔)’는 욕오를 말하고 ‘아래위’는 다섯 양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유가 높은 자리를 얻었다’는 것은 욕오를 가리키고, ‘크게 중하다’는 것은 구이를 가리키며, ‘아래위’는 이(二)와 오(五)가 서로 응함을 가리킨다. 양(陽)이 대(大)이다. ‘대유’는 큰 것 즉 양이 가진다는 뜻이다. 구이를 위주로 말하므로 ‘하늘에 응해 때에 맞게 행한다’는 것은 욕오가 밑에 있는 건의 구이와 응함을 가리킨다. 상(象)으로써 말하면, 건의 양(陽)이 아랫자리에서 위로 나아가고, 불은 위에서 그 성질이 상응하여 빛과 불꽃이 더욱 맹렬하게 드러나 못 사물들을 비추어 아무리 멀리 있는 것과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른바 ‘하늘에 응해서 때에 맞게 행한다’ 그 때문에 크게 형통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이 하늘에 있는 대유의 상은 불의 공이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혹자는 욕오를 위주로 하여 하나인 유가 높은 자리에 있고 아래위 다섯양이 그에 응하므로 대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다음호에 계속)

論語解說(19)

논어 해설

▣ 權貞澤 花山府院君宗會長 成均館 典儀

(지난호에 이어)

제6편雍야(雍也)

제5장

공자[孔子]가 말하였다. “회[回]는 그 마음 돌이 석 달이 지나가고 인자함을 이기지 않는다. 그 나머지 제사들은 하루라도든지 한 달 정도쯤 인자함에 머물러 있을 다름이다.”

【원문】

子曰 回也 其心이 三月不滯仁이요 其餘則日月至焉而已矣니라.[자왈 회야는 기심이 삼월불위인이요 기어즉 일월지연이이이니라.]

【이해】

삼 개월은 한 계절이 바뀌는 기간이니 꽤 오랜 시간을 가리킨다. 일관된 인자함을 수개월씩 유지하지 쉽지 않다는 표현을 빌려 공자가 안회의 단명을 해석해 한 것이라 생각된다.

제6장

계강자[季康子]가 물었다. “중유는 가희 정치에 참여하여 종사 할 만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유는 과단성은 있으나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또 물었다. “사는 가희 정치에 참여하여 종사 할만 합니까?”공자가 말하였다. “사는 사리에 통달 하였으니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또 물었다. “구는 재능이 많으니 정치에 참여하여 종사 할 만합니까.” 공자가 말하였다. 구는 재능이 많으니 정치에 종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원문】

季康子問하되 仲由는 可使從政也與니이까 子曰 由也는 果하니 於從政乎에 何有리요 曰 賜也는 可使從政也與니이까 曰 賜也는 達하니 於從政乎에 何有리요 曰 求也는 可使從政也與니이까 曰 求也는 藝하니 於從政乎에 何有리요.[계강자



까닭에 그의 신하 노릇을 하지 않으려고 그리 행동한 것이다.

제8장

백우[伯牛]가 병이 생기자 공자[孔子]가 문병을 가서 스스로 창문을 통해 그의 손을 잡고 말하였다. “희망이 없구나. 천명이로다. 이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이 사람한테 이런 병이 생기다니!!”

【원문】

伯牛有疾이거늘 子問之하실새 自牖로 執其手하사 曰 望之라니 命義夫라 斯人也而有所疾也인고 斯人也而有所疾也인고 [백우유허이거늘 자문지하실새 자유로 집기수하사 왈 망지라니 명의부라 사인사 이유사질야인고 사인사이유사질야인고.]

【이해】

백우는 엄경의자로 공자의 제자였으며 노나라 사람이었다. 덕행으로 아회 민손의 다음이었다고 한다. 그런 좋은 제자가 불치의병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되자 공자가 크게 애통한 것인데 엄경은 이때 문 등병에 걸렸다고 한다.

제9장

공자가 말하였다. “현자라도 안회에 한 소꼬리에 먹을 것과 한 표주박의 마실 것으로 누추한 동네에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그 근심을 견디어내지 못하는데 회는 그의 즐기는 바를 고치지 않는구나. 현자라다 회여!!!”

【원문】

子曰 賢哉라 回也여 一簞食과 一瓢飲으로 在陋巷을 人不堪其憂겨늘 回不改其樂하니 賢哉라 回也여.

[자왈 현재라 회야열일단사와 일표음으로 재누황을 인불감기우겨늘 회야불게 기악하니 현재라 회야여.]

【이해】

공자는 정도를 실행하면서 부귀에 연연하지 않고 비록 곤궁하긴 해도 천지간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이상을 추구하며 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회의 안빈낙도를 실천하는 훌륭한 자세를 찬탄하고 있는 것이다.

특기고

〈57화〉



1월경 김원봉과 의견을 달리하여, 의열단을 탈퇴하고 한커우(漢口)로 가서” 중국군에 복귀하였다고 한다. 의견의 차이로 권준 장군이 김원봉과 결별하게 되었다는 얘기이다. 결과적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종래 강고한 인간적 신뢰와 동지적 연대의 토대 위에서 협의 결정되어 왔던 의열단의 운영방식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의 운영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직규모와 참여인물이 대폭 확대된 상황(앞서 연재<7>에서 밝힌 바대로)의 변화를 요구 받고 있었다.

인관관계 또한 규정이나 규칙, 관습, 관례 등에 의해 지배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이며, 대등한 관계이던 동지 간에도 조직의 서열상 상하관계의 계급적 질서가 발생하기 마련이었다. 의열단 창립 멤버라고 할 수 있는 고창 단원 이외에 젊고 새로운 세계관과 교양을 갖춘 인물들이 교관이나 학생으로 대거 충원된 사실은 김원봉과 권준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이 그가 김원봉과 결별하게 만들었을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권준군의 이후의 동정을 살펴보면, 1934년 6월 당시, 남경(南京)에 있는 중국군 부대의 연장(連長·중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또 1937년 12월 무렵 당시 중국군 상교(上校·대위)로 근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수배를 요하는 부장선인 명부要手配不逞鮮人名簿」, 상해에 있는 일본

항일독립운동의 선봉 애국지사 백인(百忍) 권준(權峻) 장군<9>

▣ 權仁浩 (철학박사,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영사관 경찰부 제2과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第2課調). 중국인 당지에(등길滕傑)의 회고에 의하면, 권준 장군은 ‘삼민주의행사(三民主義力行社)’의 호보성 무한(武蕪) 및 강서성(江西省) 지역의 정보 책임자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역행사’는 앞서 말한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중 합작의 항일운동 정보기관으로서 조선혁명간부학교·의열단간부학교·조선혁명군사훈련반·남경선인군관학교(南京鮮人軍官學校)라고도 불렸다.

1931년 만주사변과 이듬해에 일어난 상해사변(上海事變)으로 중국에 항일 분위기가 고조되자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는 난징에서 중국국민당 내의 정보기관인 삼민주의역행사 : 일명 남의사(南義社)와 접촉하여 한·중합작의 항일운동을 제의했다. 그 결과 1932년 4월 의열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역행사 내에 간국훈(干國勳)을 주임으로 하는 민족운동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 9월 의열단 제6차 정기대표대회에서 전위투사 양상을 위한 군관학교 설립 방침을 결의함으로써 10월 난징 효룡부(孝陵衛)에 간부학교가 설치되었다. 학교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6대로서 중국 청년 간부훈련대로 위장하고 중국측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지만 운영, 교육, 졸업생에 대한 조치 등은 의열단의 자율적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교육기간은 6개월이었고 교과목은 크게 정치과와 군사과로 나누어져 철학, 유향사관, 범중론, 각국 혁명사, 삼민주의, 한국역사, 전술학, 자연과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교관은 김원봉·이영준(李英駿)·박건웅(朴建雄)·권중환(權重煥; 권준 장군)·윤세주(尹世晷)·신악(申岳) 등 의열단 간부 및 졸업생들이 맡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국군 복귀 후

明心寶鑑

명심보감

▣ 권혁재 (본원 중사 연구위원)

明心寶鑑 省心篇 上 (終篇)

● 康節邵先生이 曰(강절소선생이 왈) 閑居(한거)에 慎勿說無妨(신물설무방)하라 纔說無妨便有妨(재설무방변유방)이니라 爽口勿多能作疾(상구무물다능작질)이요 快心事過必有殃(쾌심사과必有殃)이라 與其病後能服藥(여기병후능복약)으로 不若病前能自防(불약병전능자방)이니라.

해설: 강 절소 선생이 말하기를, “편안하고 한가롭게 살 때 삼가 걱정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겨우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기가 무섭게 문득 걱정거리가 생기니라. 입에 맞는 음식이라고 해서 많이 먹으면 병이 될 것이요, 마음에 상쾌한 일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하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리라. 병이 난 후에 약을 먹는 것 보다는 병이 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하는 것만 같지 못 하느니라”고 하셨다.

참고: 慎-삼가할 신, 妨-해로울 방, 거길방, 纔-겨우 재, 爽-상쾌할 상, 殃-재앙 앙, 快心(쾌심)=마음이 기쁜 것, 閑居(한거)=한가롭게 지내는 것, 勿說(물설)=말하지 말라, 作疾(작질)=병을 만든다, 自防(자방)=스스로 방비한다.

● 粹童帝君垂訓에 曰 (자동제군수훈에 왈) 妙藥(묘약)이 難醫冤債病(난의원채병)이요 橫財(횡재)는 不富命窮人(불부명궁인)이야 生事事生(생사사생)을 君莫怨(군막원)하고 害人害人(해인인해)를 汝休嘆(여휴탄)하라 天地自然皆有報(천지자연개유보)이니 遠在兒孫近在身(원재이손근재신)이니라.

해설: 자동제군의 가르침에 이르기를,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의 병은 고치기 어렵고, 뜻밖에 생기는 재물도 운수가 궁한 사람은 부자가 되게 할 수 없다. 일이 생기게 하고나서 일이 생기는 것을 원망하지 말고, 남을 해치고 나서 남이 해치는 것을 너무 화내지 말라. 천지간에 모든 일은 다 값음이 있나니 멀면 자손에게 있고 가까우면 자기 몸에 있느니라. 고 하셨다.



邱-언덕구, 壑-구렁학, 邱壑(구학)=구렁덩이, 厚-후할 후, 두터울 후, 薄-얇을 박.

● 堪歎人心毒似蛇(감탄인심도사사)라 誰知天眼轉如車(수

지천안전여차)요 去年妄取毒蛇物(거년망취독물)터니 今年還歸北舍家(금일환귀북사가)이라 無義難田場發糞(무의전제당발설)이요 儻來田地水推沙(당래전지수추사)니라 若將救謫爲生計(약장구휼위생계)면 恰似朝雲暮落花(恰사조운모라화)이라.

해설: 사람의 마음이 독하기가 뱀과 같음을 한탄하여 마지않는다. 누가 하늘의 눈이 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음을 알 것이요, 지나간 해에 망령되게 동녘 이웃의 물건을 탐내어 가져 왔더니 오늘날엔 느닷 북녘 집으로 돌아갔구나. 불의로 얻어진 재물은 끊는 물에 던져진 눈이요, 뜻밖에 얻어진 눈발은 물에 밀려온 모래와 같다. 만약 교활한 피로써 생활하는 방법을 삼는다면 그것은 마치 아침에 떠오르는 구름이나 저녁에 시들어지는 꽃과 같이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 無藥可醫腳相壽(무약가의경상수)요 有錢難買子孫賢(유전난매자손현)이니라. 해설: 가히 재상과 같은 고귀한 수명도 약으로 고칠 수 없고, 돈은 있어도 자손의 현철(賢哲)함은 사지 못하느니라.

● 一日清閑一日仙이니라.

해설: 하루라도 마음이 깨끗하고 편안하다면 그 하루는 신선이 되느니라.

참고: 堪-견딜 감, 堪歎(감탄)=한탄하여 마지않는다, 毒-독할 독, 蛇=뱀사, 壽似蛇(독사사)=독한것이 뱀과 같다, 騰이 옷 인(인), 湯-끓을 탕, 澆-몰 뿌릴 밭, 儻=진실로 당, 狡-간교할 교, 講-속일 줄, 간사할 흘, 恰-미침 흘, 卿=벼슬 경, 壽-목숨 수, 買-살 매, (實=팔 매), 閑-한가할 한, 仙=선 선, 天眼(천안)=하늘의 눈, 轉如車(전여차)=수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뜻, 妄取(망취)=망령되게 가지는 것, 還歸(환귀)=돌아간다, 湯潑湯(탕발설)=끓는 물에 던져진 눈, 儻來(당래)=뜻밖에 얻어진 것, 水推沙(수추사)=물에 밀린 모래, 狡謫(교휼)=교활하게 하는 것.